

‘음악 향유의 융평(隆平)’을 실현하는 길

- 2023. 8. 9, 아시아태평양음악교육연구심포지엄, 기조 강연 -

The Path to Yungpyeong of Music Enjoyment

이홍수*

Hong soo Lee

머리말

요즈음 나는 돌이키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돌아봄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아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내 문제점과 어리석음을 알아채게는 해줍니다. 덕분에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발견하는 한편, ‘수업에서 음악의 핵심을 찾아 지도하는 요령’에 눈뜨고 있습니다. 이제야 ‘찐 교육’에 눈뜨다니 바보 아닌가요! 그러나 어쩔니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고마울 뿐이지요. 나의 가장 큰 과오는 교과와 당위와는 무관하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게 만족스러운 만큼 가르치려 했던 일입니다. 교실에 나는 있되 학생은 없게 만들었고, 약간의 내 공로는 입증했으나 학생에게 음악적으로 얻은 것, 남다른 것을 갖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구는 크고 내 활동이 많아 나는 신명났으나 학생의 내면과 능력은 존중되지 않았고, 그들의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그걸 음악교육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음악을 많이 알고 잘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나를 따라 하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 파고 들어갔던 함정이었습니다.

자만 않고 진정한 교육에 성공하려면, 교수 경험이 커져야 쌓일 때까지 세심하게 연구하고 교과 근본에 따라 겸허히 성찰하면서 성장기 학생에게 불가결한 ‘소통 중심의 음악 미적 경험과 탐구 중심의 음악 원리 학습’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과 기능, 이론을 수동적으로 배우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적 삶의 경험과 느낌이나 생각과 관련지어 그들이 절실하게 실감할 예술 음악작품들로 자신의 주체적 음악 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에서 음악 미적 감흥을 경험하는 가운데 음악

*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음악교육학 박사

실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고, 악곡의 생성 및 소통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실 안팎에는 정상적인 교수학습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교사들과 가졌던 대화에서 나는, 교직 초기에 품었던 굳은 의지와 아름다운 열망을 잃고 음악과의 현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음악 교육계가 오랜 기간 무의식 속에 파놓은 또 다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교육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 진단

정상의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음악과의 경우 내부 상황 요인이 더 중대해 보입니다. 일부 교육자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에 영향을 받은 많은 교사가 교과와 당위와 자신의 소임을 오인함으로써 음악교육 의식이 약화 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각에서 진단된 주요 저해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악교육계에 ‘예술 음악작품 및 활동의 교육적 효용성’에 관한 의식과 ‘미적 경험 중심의 음악교육’에 대한 열정이 약화 되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악곡을 편히 쉬며 듣게 하고 재미있게 노래 부르게 하는 수업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교과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업 설계와 진행이 악곡 익히기와 객체적인 표현 활동, 수동적인 듣기에 머물러 있어서 수업에서 학생 내면에 음악 미적 감흥을 일으켜 주지 못하며, 음악 공유 경험과 소통원리 학습을 충실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이 ‘학습 요소의 학년 간 위계와 활동요소의 영역 간 연계’에 따라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초 기능의 터득과 음악 생성에 관한 탐구 학습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학령기의 발달 기대치에 속하는 음악성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우리는 음악교육의 현실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편이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교사 음악 수행능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약화와 예비교사들의 음악 활동 및 연습 기회의 감소 경향이 교사들의 교수역량과 자신감, 음악교육의 질적 발전과 여건 향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음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실천과제

우리의 소임은, 학생이 음악작품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소통하면서 예술적 감흥을 누리게 하며, 작품과 활동을 통해 음악의 방법 및 기능을 터득하고 음악 생성원리와 소통원리를 학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에, 앞서 밝힌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술 미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음악 지도

예술 작품은 창작자가 삶에서 경험한 것과 상상한 바를 소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작품에서는 인간의 삶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음악이 되어 사람의 내면으로 돌아와 선의지와 아름다운 열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술 작품은 내용과 방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일 때 성립되며, 경험자에게 감성과 오성, 품성의 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자체존립의 목적을 지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술 향유를 통해 더 진전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그중에서도 예술 음악 향유를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술 음악 향유로 삶의 진전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술 음악으로 그렇게 되기는 쉬울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큼니다. 예술 음악작품의 교육적 효용도가 어떤 종류 음악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며, 수업 시간을 최소로 배당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 음악이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하나로서 동시에 경험하는 영역’이고, 다양한 방식과 수준의 메커니즘을 통해 각기 나뉘므로 지고의 감흥과 감격, 희열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며, 현실적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한 이데아를 만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술 음악작품을 감상하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탐구할 때보다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통찰하는 순간을 가졌던 적이 있나요? 그때보다 더 심장이 생동하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세상의 관심과 사용이 Chat GPT에 쏠릴수록 학교에서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과 사고, 상상과 통찰을 경험하고 연습하게 하는 일입니다.

수업에서 음악 미적 감흥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은 교사의 역량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성악 및 기악 표현 기량을 충실히 갖추어야 하고, 작곡과 편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악작품을 깊이 감상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교사의 역량과 열정은 수업에서 목소리와 표정, 몸짓 속에 표출됩니다. 학생은 그때 교사의 음악적 진정성으로부터 귀속에 음의 떨림과 가슴에 예술적 심상을 옮겨 받으면서 감동합니다. 만약 교사가 “교실에서 악곡과 이론을 배우고, 감동은 연주회에 가서 하라.”는 태도로 수업한다면, 그것은 음악교육의 당위와 거리가 멉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악곡과 활동이 있을 수 있고, 교사가 그런 것을 수용하

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곡과 활동이 교사의 교육 의도에 합당해야 하고, 그 회수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역량과 열정을 학생들이 원하는 재미와 신남을 위해 허비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음악과의 기본과 중심은 반드시 ‘예술 음악작품의 경험과 학습’이어야 합니다.

둘째, 미적 감흥 및 공유를 경험하고 음악소통의 원리를 학습하는 수업

조성진의 연주회에는 많은 청중이 참석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대중음악 청중이 예술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면, 교향악의 청중도 될 것입니다. 거기 중요한 간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술 음악작품으로 미적 감흥을 즐기고 소통의 원리를 충실히 배운 사람은 전통음악과 대중음악까지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적 감흥과 소통의 원리를 터득하지 않은 채로 특정한 음악만을 즐기는 사람은 예술 음악을 깊이 향유 하기 어렵습니다. 예술 미적 경험이 빈곤한 음악 생활로는 전반적 삶의 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진화인류학자 장대익은 선택적 공감 과잉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는 자기소속집단만이 아닌 외부 집단으로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감의 반경, 2022).”라고 말합니다. 자기 분야에만 집착하면, 공감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은 물론 그 분야의 발전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 음악을 교육하는 사람은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에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사람은 예술음악의 진수를 연구하면서 음악 생성 및 소통의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악교육계에는 아직도 ‘교과서의 특정 종류 악곡의 수와 이론의 양’에 관심을 두는 교육자가 많고, 그런 태도가 음악교육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시대와 지역, 장르의 음악을 경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모든 종류의 악곡을 같은 수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일상 경험 및 생각들과 깊이 관련되어 절실하게 실감할 만하고 교육적 효용도가 큰 작품을 선택하여 그것을 주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음악 공유의 원리를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사는 수업에서 악곡과 활동을 통해 공유하게 할 요소와 경험하게 할 요소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이러한 악곡 요소와 행위 요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학년별 수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들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곡 및 행위 요소

- 공유할 악곡 요소 : 의미 (소재/내용), 아름다움 (질), 소통 (역할)
- 경험할 행위 요소 : 1차 내면작용 (느낌, 생각, 상상), 2차 내면작용 (수용, 통찰, 판단)
외적 행위 (모방, 표현 : 노래 부르기/연주하기, 창작)

셋째, 수용/표현 능력습득과 악곡생성원리 탐구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는 수업
음악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감각과 감성, 기능,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업에서 연습하고 학습해야 하는 기능과 개념, 원리가 많음을 뜻합니다. 만약 노래를 지도할 때 기능의 연습과 악곡생성원리의 탐구를 소홀하게 하면 반쪽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음감과 기초 기능의 연습을 즐기게 하고, 기본과 원리의 탐구를 즐길 수 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의 생성과 소통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예술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의 경이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에게 연습하고 학습하게 할 요소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학습 요소의 학년 간 위계와 활동요소의 영역 간 연계’에 따라 정교하게 구조화하고 교사가 학습 요소를 선정할 수 있게 되면, 기초 기능의 터득과 음악 생성에 관한 탐구 학습의 지도가 충실해지고 학생들의 음악성은 지속해서 발달할 것입니다.

습득 및 학습 요소

- 기능습득 요소 : 기본 능력 - 음감 (길이/높이/크기/음색), 악보 읽기 및 쓰기
기초 기능 - 노래 부르기 및 악기연주의 기초 기능
- 개념/원리 학습 요소 : 악곡의 구성요소 개념, 악곡의 생성원리 (형상화/구조화/구조적 형상화)
- 수용/표현 학습 요소 : 감상 (탐구/이해/수용) 방법, 가창/기악 표현 방법, 모방/창작 방법

넷째, 우리나라 음악교육자들과 심포지엄 해외참가자들에게 제안함

우리나라 음악교육자들은 음악적 재능과 교수역량을 충실히 지니고 있고, 모든 학교는 음악 지도에 필요한 시설과 악기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수행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여건을 점검하여 그것을 근거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회 지도자들에게 ‘평가 및 점검 체제’를 만들고, 교사들과 함께 주기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음악교육 수행의 평가와 여건의 점검을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결과는 교사 수업역량의 보완과 교육과정 연구, 음악시설 및 악기, 장비의 보충을 돕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원양성대학 교수들이 예비교사들에게 예술 음악 향유의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기 바라고, 그들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음악 활동과 악기 연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 합창과 합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지고의 음악적 감흥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 자신의 교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해외참가자들이 특히 ‘음악 미적 경험 중심의 지도방법’과 ‘학교 오케스트라의 활성화’, ‘계명창 학습의 교육적 효과’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널리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맺는말

나는 사회적 이념으로 조선 선비 조광조의 ‘용평 사상’을 지지하고, 문화예술 지향으로 허버트 카라얀의 ‘클래식 음악 확산 열망’에 공감합니다. 조광조는 사회에 연루되어 정치적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는 이상입니다. 카라얀은 탁월한 지휘와 LP, CD, DVD 제작으로 음악 향유의 가능성을 확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 진전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일’은 모든 시대 인류 공통의 소망이며, 교육은 그 지향 대열의 선두에 있습니다. 음악교육도 그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음악을 바르게 지도한다고 학생 내면이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변화의 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학생의 내적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관심 없이 노래를 가르치면, 그 수업은 자기만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선의지와 아름다운 열망을 가지고 음악을 가르치면, 그것은 학생과 나라와 인류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년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말합니다. “음악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진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명쾌한 선언인가요! 베토벤의 음악이 21세기에도 유효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더 새롭고 유용한 것에 열광하는 오늘날에도 예술 음악은 인간의 내면과 삶의 기본을 일깨우고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음악적 성장을 도움으로써 다양한 예술을 향유 하는 삶의 기반을 구축하게 합니다. “모든 예술은 자신을 불태워 얻는 불꽃”이라고들 말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불꽃을 피우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에 “예술 음악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음악교육자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누가 그보다 더 숭고한 삶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소임과 숭고한 삶을 길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것에 주목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악과의 기본을 지도하는 데에 힘쓰고, 음악교육 연구의 목적과 적정성, 문제점도 음악과의 본질과 음악의 기본에서 찾기를 권합니다. 각 교과 기본의 교육이 부실하면, 학교 교육 전부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포지엄 기간을 ‘생애 최상의 날’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